근대조명 –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규와 한미전기회사의 발족 ⑦–2

❶

❷

❸

콜브란 등의 미국과 일본 양측의 갈등은 전차 영업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한성전기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차 운영인력에 일본인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갑작스런 철수로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1899년 5월 20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던 전차는 영업 일주일째인 5월 26일 파고다공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차 운행이 파행되었다. 사고 후 인근 시민들은 달아나려던 전차를 막아 세워 일본인 운전수를 끌어내 폭행하였고, 차량을 불태우고 파손했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과 고물가 등으로 당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감이 컸었는데, 참혹한 사고 현장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순식간에 폭동으로 돌변했던 것이다. 폭동은 다른 시설물 파괴에 이르기 전에 가까스로 중단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인 종업원들은 전차마다 일본영사관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승무원에게 권총 휴대를 허락하라는 등의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콜브란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공사관에서는 이를 구실로 운전수 10명과 기관사 2명을 자국으로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콜브란 측은 급히 미국에 연락하여 1년 계약직으로 기계기술자 2명, 차체수리사 1명, 운전수 3명, 관리자 1명 등 총 7명을 데려와 급히 한국인들을 교육시켜 운행을 재개했지만, 그해 8월 10일 재개통 때까지 전차운행은 두 달 반이나 중단되어야 했다[1].

또한, 일본은 한성전기의 용산선 부설 계획이 확정되자 자국의 경인철도 부설권 침해를 우려해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한성전기의 용산선이 경인철도의 확정선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은 후발사업자인 한성전기의 선로를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2].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거주자가 밀집한 가로(街路)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이동하라는 의미로 대한제국 정부나 콜브란 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콜브란 측은 한성소윤 이계필(李啓弼, 생몰년 미상)로부터 이러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즉각 알렌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알렌이 직접 강력한 경고와 함께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1861~1939)와 교섭한 후 교차로 유지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조건으로 겨우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계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야시 일본공사가 직접 고종(광무황제)에게 용산선 구매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었고, 한성전기의 독점권 일부인 전등 분야의 매수를 시도하는 등 콜브란 측이 가지고 있던 갖가지 이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일본은 콜브란 측이 황실도로의 연장을 늘려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일본이 공사를 맡으면 연장을 줄여 공사비를 낮추겠다고 주장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1900년 9월 3일 시작된 공사는 곧바로 중단되고 말았다. 콜브란 측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터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로 연장을 줄일 수 없다며 대한제국 관리들을 설득했고, 알렌까지 나서 하야시에게 직접 미국 기업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본은 일본인이 덕소 연장선 공사를 맡으면 공사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며 황제를 설득하는가 하면, 콜브란 측이 주도하는 은행설립에 반대하였고, 수도설비 이권을 자국에 달라고 강력히 청원했다가 여의치 않자 동맹국인 영국인

사진 ❶ 동대문발전소 전경(1900년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33쪽 ☞ 발전소 굴뚝에 석탄을 땐 연기가 솟고, 왼쪽에 동대문[興仁之門]이 보인다.
사진 ❷ 동대문을 통과하는 전차와 동대문 발전소 굴뚝(1900년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1쪽 ☞ 동대문발전소는 당시 합계 200kW의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전차 및 전등설비의 전력을 공급했다.
사진 ❸ 한성전기회사의 사옥을 경비하고 있는 미국 수비대원들(1904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4쪽

1) 《皇城新聞》 1899.5.29, 6.3, 6.24, 8.9 / 《독립신문》 1899.8.11
2) 《皇城新聞》 1899.8.25, 1900.4.14 / 《帝國新聞》 1900.4.14

챈스(Chance)를 후원하는 등 계속해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3].

일본의 방해공작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던 콜브란 측의 사업 확장 계획은 대한제국 내 정파 간의 권력쟁탈전이 가속화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황실 측근 세력(특히 이용익)과 친미개화파(특히 이채연) 간의 갈등이 그러한데, 이들이 이처럼 극도로 대립했던 이유는 단순히 권력쟁탈을 둘러싼 정적에 대한 적개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두 세력 사이에는 근대화의 방법에 관한 극복하기 어려운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친미개화파들은 군주권의 제약을 통한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이상으로 여기며 갑오개혁(甲午改革) 이래 민간 중심의 상공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황실 측근 세력은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바탕으로 한 절대군주제를 근대화의 방안으로 생각하여 황실 산하 궁내부(宮內府) 주도로 각종 근대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자신들이 직접 관련 기구를 통제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황실 측근 세력 입장에서 보면, 한성전기는 친미개화파 관료들이 황제를 감언이설로 속여 무분별하게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인들에게 각종 이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정치 · 경제적 세력을 강화해 나가는 수단으로 여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용익을 중심으로 한 황실 측근 세력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콜브란 측의 경영확대를 저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성전기의 경영권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였다. 방편으로서 서북철도국을 조직하여 한성전기의 송도철도 부설 계획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나, 황실과 정부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한성전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제하고 광무황제를 설득해 콜브란 측의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철저히 봉쇄해 나간 것이 그러한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친미개화파 관료들과 알렌을 비롯한 콜브란 측은 황실 측근 세력(특히 이용익)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였다. 이용익의 반대로 인해 각종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콜브란 측은 채무상환 만기일을 빌미로 한성전기의 자산을 유저당처분하겠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은 채무액 산정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며 정확한 채무액 확정을 위해 장부 조사부터 선행하자고 맞서면서 양측 간에 분규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한성전기의 채무분규이다.

이와 아울러 당시 일본은 콜브란 측의 사업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용익을 중심으로 한 황실 측근 세력과 콜브란 측의 갈등이 한성전기의 채무분규로 비화하자 이를 대한제국의 전력산업을 장악할 호기라고 여겨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일본은 우선 일본인 기업을 내세워 한성전기의 자산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대한제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해 콜브란 측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도록 돕고 이를 빌미로 일본인 기술자를 고용토록 하여 경영권을 간섭 · 장악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속셈을 간파하고 한성전기의 자력 인수를 희망했던 황실 측근 세력(이용익) 때문에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채무분규는 장기화되고 말았다.

• 사진 및 자료
- ○《皇城新聞》
- ○《독립신문》
- ○《帝國新聞》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주요문헌집》, 1990.
- ○ 오진석, 〈1898~1904년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경영변동〉,《동방학지 제139집》 별쇄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 기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❹ 한성전기회사에 긴급 배치된 미국 수비대(1904년),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5쪽 ☞ 광화문의 시민폭동(1903.9.30)을 계기로 1904년 1월 4일 서울에 들어와 한성전기회사의 시설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수비대

사진 ❺ 광화문 시민폭동의 발생상황과 조치내용을 외부대신서리(外部大臣署理) 이중하(李重夏)에게 올린 한성판윤(漢城判尹) 민경식(閔景植)의 보고서(1903.10.3.),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5쪽

사진 ❻ 한미전기회사(韓美電氣會社) 설립계약서의 일부(1904년),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6쪽 ☞ 1904년 2월 19일 고종[光武皇帝]의 대리(代理) 이학균과 콜브란, 보스트위크 사이에 조인된 한미전기회사 설립계약서로서 중앙에 고종의 재가(裁可)를 받은 뒤에 찍은 [啓]字印이 보인다.

사진 ❼ 러 · 일전쟁의 개전을 앞두고 남대문[崇禮門]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일본군(1904년),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47쪽

3) 吳鎭錫, 〈1898~1904년 漢城電氣會社의 설립과 경영변동〉,《東方學志 제139집》 별쇄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204~205쪽 참조